

뒤셀도르프 공항 화재, 그후 5년

1996년 4월,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뒤셀도르프 공항 B동 터미널 화재사고 이후 취해진 공항 당국의 화재안전대책과 그 적용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1996년 공항 터미널 화재가 있는 지 꼭 5년 만인 2001년 7월 1일,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의 B동 터미널이 다시 문을 열었다. 1996년 화재 사고 이후 뒤셀도르프 공항에서는 위기관리 및 화재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1998년 작성된 “공항비상사태대응지침”은 오늘도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1997년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은 독일 공항들 중에서는 최초로 업무시간에 공항 터미널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일련의 대피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이었다.

업무시간 중에 실시한 첫 번째 대피훈련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대다수 이용객들은 대피 사이렌이 울렸어도 당황하지 않고 공항 직원이 어디어디로 대피하라고 말할 때까지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침착한 공항 이용객들의 태도는 다른 공항에서 실시한 훈련에서도 자주 목격되었다.

요즈음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등의 공항에서도 각국의 언어로 대피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안내방송 전후에는 대피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대피 안내방송과 대피 사이렌은 공항 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모두 대피할 때까지 또는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된다. 공항 직원의 경우, 대피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되면 안내방송에 관계없이 즉시 건물 외부로 대피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일반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피훈련에서는 흥미로운 행동특성들이 관찰되었다.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주말 여행객인데, 이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상구로 몰려드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비해, 화요일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이동하는 승객들인데, 이들은 다른 많은 비상구를 내버려두고 자기가 이용한 출입구로만 향하는 특징을 보였다.

승객들은 통상 출구를 향하는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 신속하게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므로, 군중이 질서 있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이 대피 방향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항 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즉 항공사 직원, 경찰, 세관원, 일반 가게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대피훈련을 시작한 초기에 공항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후 다른 공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재안전훈련”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공항 출입증을 패용하는 모든 직원은 화재대피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정복을 착용한 공항 직원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훈련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찰, 세관원, 보안요원 등 정복을 착용한 직원의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우선적으로 찾게될 것이므로 이 그룹에 대해서는 교과강의와 함께 18개월에 1회씩 대피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이들 이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과 관련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영상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영상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고 교육을 필한 직원들에게만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또한 3년후 신분증을 갱신할 때에 재차 교육을 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고무적이었다고 한다.

화재대피훈련은 여객용 터미널에서뿐만 아니라 공항 인근의 건물에서도 년 1회씩 실시하였는데, 인근 호텔에서도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대피훈련과 더불어, 공항내 각종 사고, 독극물이나 폭탄 테러 위협 등을 전담하는 “위기관

리팀”의 활동도 계속되었다.

또한 사고 대처리에 대한 훈련과정인 “기초가정지원훈련”도 도입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공항 직원들은 비상사태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할 수 있었고, 비상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특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000년 6월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주요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자동전화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30회선의 전화와 팩스, 기타 통신문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이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의 화재사고 및 이후 취해진 일련의 대책들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세계 주요 공항, 항공사, 그리고 화재안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 Fire International(2001.9)

♣ 화재안전점검매뉴얼(제3판)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협회 조사·연구업무의 일환으로 화재안전점검에 필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화재안전점검매뉴얼」 증보판을 최근 발간하였습니다. 「화재안전점검매뉴얼」에는 화재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건축물의 방화·피난시설, 전기·가스·위험물 및 소방시설, 공업·공정별 방화기준 등 협회가 지난 28년간 축적해온 안전점검 노하우가 9개의 중요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분량: 국판 470쪽

◆ 가격: 15,000원

(정보회원 20%~50% 할인)